

기출문제 해설 강의

大韓國史

2014년 7급 국가직(7월 26일 시행)

한국사

-A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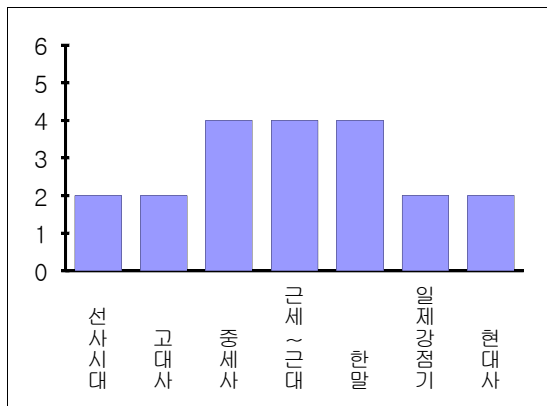
* 大韓國史
윤승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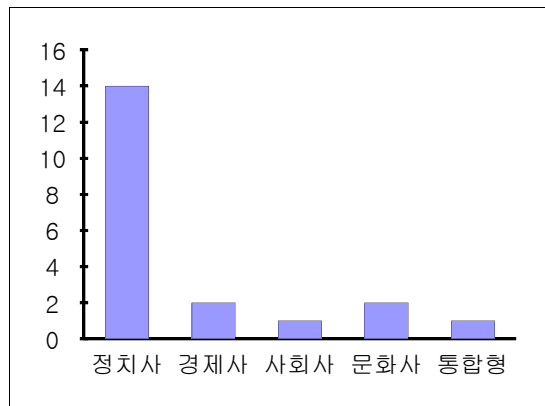
문제 유형 분석표

분 류		문항 수	내 용	대한국사	대한국사	대한국사
선사 시대			- 구석기, 청동기 - 옥저, 삼한	56쪽, 79쪽 121쪽, 124쪽	1번, 18번 33, 34, 36, 38, 39번	4회 4번 4회 11번, 6회 13번
정치사	고 대		삼국의 불교 공인	142쪽, 143쪽 등	44, 66, 114번	5회 2번, 5회 13번
	중 세		- 고려 태조(훈요 10조) - 최충헌(봉사 10조)	282쪽 334쪽	90, 91, 231번 98, 103, 104번	3회 8번 2회 16번
	근세~근대태동기		- 김종직 - 조선의 관계(官階)	433~437쪽 390쪽	140번, 144번 198번, 199번	4회 2번 6회 10번, 9회 18번
경제사	고 대					
	중 세					
	근세~근대태동기		균역법	560쪽	159번 228번	6회 8번
사회사	고 대					
	중 세					
	근세~근대태동기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707~709쪽	300번, 301번	
문화사	고 대					
	중 세		- 삼국사기 - 고려 청자	867쪽 965쪽	346번 406번	10회 15번
	근세~근대태동기					
근현대사	한 말		- 최익현(1870년대 위정 척사 운동) - 동학 농민 운동 - 을미개혁(소학교령) - 국채 보상 운동	1015~1017쪽 1030쪽 1040쪽 1087쪽	414번, 415번 433, 434, 438번 439, 442, 444번 473, 520, 521번	5회 3번 1회 20번 7회 10번, 9회 5번 3회 16번
	일제강점기		- 문화 통치 - 신간회	1166쪽 1218쪽	493, 494, 496번 515번, 516번	4회 12번, 7회 8번 5회 7번
	현대사		9차 개헌 - 남북 기본 합의서	1352쪽 1377쪽	580번 589, 590, 591, 592번	4회 18번 8회 18번
통합형			신라 하대의 경제·사회 상황	241쪽	81번, 82번	1회 5번, 5회 17번, 8회 14번

<시대별 분석>



<분류사별 분석>



총 평

이번 7급 시험의 난이도는 9급 국가직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3년에는 20문제에서 자료 제시형 문제가 13문제, 그중에서도 사료 12문제, 일반자료 1문제, 나머지 단답형 문제가 7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사료 14문제 일반자료 제시형 4문제가 출제되어서 자료를 제시하고 푸는 문제가 18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답형 문제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좀 더 시대상황을 명확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었다.

문제 배분에 있어 2013년에 근현대사는 7문제 출제되었고, 올해는 8문제가 출제되었다. 최근 5년 동안 근현대사 파트에서 5문제 이상 출제된 적이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고등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과목과 국사 과목을 분리 시켰던 것을 현재 '한국사' 한 과목으로 합쳐져 있고, 그 중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 맞춰 근현대사 출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것은 경제사, 사회사의 약화를 볼 수 있다. 최근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은 일반적으로 근현대사, 전근대사의 정치사 부분이 강세고, 경제사, 사회사 부분은 1~2문제 이상 출제되지 않고 있다.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 정도의 문제가 3문제라고 본다면 올해는 5~6문제 정도가 상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중 정도의 문제는 9~10문제 정도로 낮은 하 문제는 5문제정도 출제된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는 극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중하의 문제들이 4문제 정도로 출제되고 낮은 문제는 1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시대사를 묻는 문제에서 인물사에 대한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인물에 대해 생애나 연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해설

문 1. 다음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색이 푸른데 사람들은 이를 비색(翡色)이라 한다. 근년에 들어와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술병의 형태는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작은 뚜껑이 있고 마치 연꽃에 얹힌 오리 모양이다.

- ① 강진과 부안이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 ② 왕실과 관청 및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 ③ 송나라 사신 서궁이 그 아름다움을 극찬하였다.
- ④ 신라 말기 상감청자가 제작되면서 무늬가 한층 다양해졌다.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965쪽 참고)

☞ 제시문은 서궁의 『고려도경』의 내용으로, 11세기에 고려에서 유행했던 순수 청자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 청자의 '비색'이란 표현은 이 책에서 비롯되었다.

- ④ 상감청자는 12세기 중엽에 유행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선다 적중

[600제 406번] 자기의 시대별 특성과 발전을 언급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발해자기는 가볍고 광택이 있었으며 당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 ② 청자의 주요 도요지는 전라도 강진과 부안 등지이다.
- ③ 상감청자는 은입사 기법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원 간섭기와 원명교체기에 발달하였다.
- ④ 분청사기는 조선 초 전국적인 자기소와 도기소에서 생산되었다.

정답 ③

문 2. 밑줄 친 ‘이것’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짐은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재위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이제 왕위에 오른 지도 25년이 되었다. 몸이 이미 늙어지니, 후손들이 사사로온 인정과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할까 크게 걱정이 된다. 이에 이것을 지어 후대의 왕들에게 전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원토록 귀감으로 삼을지어다.

- ①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를 축소할 것
- ② 풍수지리 사상을 존중하고 서경을 중시할 것
- ③ 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여 신민의 지지를 얻을 것
- ④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부국 안민을 이룰 것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282쪽 참고)

☞ 제시문의 ‘이것’은 ‘훈요 10조’이다. 훈요 10조는 고려 태조가 942년(태조 25)에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몸소 지은 열 가지 유훈(遺訓)으로 태조가 죽을 무렵 박술희에게 전하여 후대의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① 태조는 훈요10조 중 제6조에 연등회와 팔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 절차의 가감(加減)’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장하였다.

알아두기

*2014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전근대사-정치사 3-3> “훈요 10조”

- 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2조 신선했던 사원은 도선이 산수의 순(順)과 역(逆)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 사원을 함부로 짓지 말라.
- 3조 왕위 계승은 만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만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 4조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人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특히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라.
- 5조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 6조 나의 소원은 연등과 팔관에 있는바,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악(岳)·명산대천·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 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 7조 임금의 신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팔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또,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 8조 차현 이남, 금강 밖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王侯)·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 9조 무릇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 10조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해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적중 문제⇒ 주제·선다 적중

[200제 3회 8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친 국왕과 관련된 사료를 <보기>에서 고르면?

-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 지방에 할거하고 있던 호족들을 포섭하고, 한편으로 이들을 견제하여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 보 기 >

- ㄱ.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煙燈)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八關)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 피게 하소서.
- ㄴ.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서 인질로 삼고 또 그 향사(鄉事)의 고문에 대비하게 하였다.
- ㄷ. 지금 승려 한두 사람이 궁중에 자주 출입하고 또 왕이 내신으로 하여금 불사를 관장하여 곡식으로 민간에게 고리대를 함으로써 그 폐가 적지 않으니, 승려의 왕궁 출입과 곡식 대여를 금할 것.
- ㄹ.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므로 백 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④

문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그 나라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 약속을 한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나) 큰 세력을 가진 이는 스스로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邑借)라 한다.

- ① (가) - 해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나) -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 ③ (가) - 대가들이 각기 사자·조의·선인을 거느렸다.
- ④ (나) - 도둑질한 자는 물건 값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21쪽, 124쪽 참고)

☞ (가)는 옥저의 민며느리제에 대한 기록이고, (나)는 삼한에 대한 기록이다. 삼한의 군장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대군장인 신지와 소군장인 읍차·부레 등이 있었으며,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벼농사가 널리 행하여졌다.

- ① 무천은 동예의 제천행사이다.
- ③ 고구려는 부족장인 대가가 그 밑에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 ④ 고구려와 부여에는 1책 12법이 존재하여 도둑질한 자는 물건 값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사료·선다 적중

[600제 33번] 다음의 사료에 언급된 국가와 관련된 내용은?

사람들 성격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군세고 용감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을 잘한다. 음식·주거·의복·예절은 고구려와 매우 비슷하다.
그 나라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으로 되돌려 보낸다.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뒤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 ① 철이 많이 생산되었고, 문신과 편두의 풍속이 유행하였다.
- ② 형사취수제와 우제점법의 풍속이 있었으며 국동대혈에서 제사를 거행하였다.
- ③ 가족묘제가 유행하였으며, 어물, 소금 등 해산물에 풍부하였다.
- ④ 족외혼과 책화의 풍속이 있었으며,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로 생산되었다.

정답 : ③

[200제 6회 13번] 다음의 기록에서 언급한 초기국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기 별읍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도망하여 그 안으로 들어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므로 도적질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이 소도를 세운 뜻은 부도와 같으나, 행하는 바의 옳고 그름에는 다른 점이 있다.

『삼국지』 권30, 「위서」 30, 동이전, 한

- ①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5개월장을 치렀으며, 부패를 막기 위해 얼음을 사용하였다.
- ②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목곽에 함께 안치하였다.
- ③ 방직기술이 발달하여 명주와 삼베를 생산하였으며, 단궁·반어피·과하마 등도 생산되었다.
- ④ 신지, 읍차, 부레 등의 군장이 통치하였으며, 지신밟기 등의 풍습이 있었다.

정답 : ④

문 4. ㉠~㉣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 왕 때 전진에서 승려 순도(順道)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으며, 백제는 ㉡ 왕 때 동진에서 고승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불교를 전하였다. 신라의 불교는 ㉢ 왕 때 고구려에서 온 승려 목호자가 전하고 소지왕 때 다시 고구려에서 승려 아도가 전하였으나 ㉣ 왕 때 이차돈의 순교 후 비로소 공인되었다.

- 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②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라 하였다.
- ③ ㉢-황룡사를 짓고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 ④ ㉣-법령을 반포하고 상대등 제도를 설치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42쪽, 143쪽, 161쪽, 164쪽, 183쪽, 187쪽 참고)

☞ 제시문의 ㉠은 소수림왕, ㉡은 침류왕, ㉢은 눌지 마립간, ㉣은 법흥왕이다.

- ④ 법흥왕은 520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으며 골품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상 대등을 설치하고 이찬 철부를 상대등에 임명하여 왕권 밑에 귀족 회의의 주재자를 설치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하였다.
- ① 고구려의 장수왕은 귀족 세력의 약화, 서해안 적극 진출, 남진 정책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 ② 백제 성왕은 538년 수도를 협소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후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여'라 개칭하여 부여족으로서의 전통을 강조하였다.
- ③ 황룡사는 진흥왕 시기인 553년에 완공되었고, 9층 목탑은 선덕여왕 시기에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의 건의에 따라, 백제의 아버지를 데려와 외환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완공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선다 적중

[2014년 7급 국가직·서울시 대비 문풀 5회 14번] 삼국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고구려는 소수림왕 시기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으며, 삼론종이 발달하였다.
- ② 신라의 자장은 진흥왕에게 황룡사 창건을 건의하였으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③ 신라의 원광은 진평왕의 명에 따라 수나라에 청병하는 글인 결사표를 지어서 바쳤다.
- ④ 백제의 겸익은 인도에서 가지고 온 불경을 번역하고 율종의 개조가 되었다.

정답 ②

문 5. 밑줄 친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 내에 부도덕한 말로 선왕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였다. …(중략)… 성덕을 속이고 논평하여 김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거짓을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 ① 조의제문을 지어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었다.
- ② 길재의 학통을 잇고 세조 대에 정계에 나아갔다.
- ③ 제자들이 과거를 통해 주로 삼사 언관직에 진출하였다.
- ④ 국가의 여러 행사 규범을 담은 『국조오례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433쪽~437쪽 참고)

☞ 제시문의 ‘그’는 ‘김종직’이고, 제시문은 김일손이 스승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실은 것을 문제 삼아 일어난 무오사화에 관한 내용이다.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파는 정몽주, 이색, 길재 등 여말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로서 세조 대에 정계에 진출한 이후 지나친 부국강병책, 내수사를 통한 왕실의 부 축적, 훈구파의 무리한 재산 축적과 특권 강화 등을 비판하였다. 사림파는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인 김굉필·정여창·김일손 등으로서 훈구파의 일방적 비대를 막으려는 성종의 발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고, 주로 3사에서 언론, 문헌을 담당하며 훈구파의 전횡을 견제하는 한편, 세조 이후 약화되었던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 ④ 『국조오례의(1474, 성종)』를 편찬한 신숙주, 정척 등은 대표적인 훈구 세력이다.

적중 문제 ⇨ 주제·사료·선다 적중

[600제 140번]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대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조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형조판서에 이르러서는 은총이 온 조정을 기울게 하였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제지 관리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을 내려주도록 하여 그 연환을 마치게 하였다. 지금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써 선왕조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연산군일기』 권30, 연산군 4년 7월 신해

- ① 이 시기 박해를 받은 인물들은 후일 기묘명현이라 존숭되었다.
- ② 이 사건은 지치주의를 실현하려 했던 김종직과 사림파의 위훈삭제로부터 비롯되었다.
- ③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태종시기에 일어난 왕자의 난을 비판한 것이었다.
- ④ 김일손은 언관의 활동 보장과 천거제의 적극 활용 등을 건의하였던 인물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죽음을 당했다.

정답 ④

문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어른과 아이(父老子弟)와 공사천민(公私賤民)은 모두 이 격문을 들어라. 무릇 관서는 기자와 단군 시조의 옛터로, 훌륭한 인물이 넘친다. …(중략)… 그러나 조정에서 서토(西土)를 버림이 분토(糞土)나 다름없이 한다.
- (나) 금번 난민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서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영에서 포탈한 환곡과 전세 6만 냥을 집집마다 배정하여 억지로 받으려 하였습니다.

- ① (가)–금광 경영이나 인삼 무역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② (나)–노비 문서의 소각과 탐관오리의 엄징을 요구하였다.
 ③ (가)–세도 정권과 특권 어용상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④ (나)–조정은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세제 개혁을 약속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707쪽~709쪽 참고)

☞ 제시문의 (가)는 홍경래의 난(1811, 순조), (나)는 임술 농민 봉기(1862, 철종)에 대한 기록이다.

(가) 홍경래의 난은 서북민에 대한 차별에 불만을 품고 몰락 양반 홍경래의 지휘 아래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난이다. 당시 상인들은 봉기 준비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군졸을 모으는 데 절대적인 성과를 올렸고, 난의 지도자들은 참위설을 내세웠으며 토호·관속을 향해 지역 차별과 정치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임술 농민 봉기는 삼정의 문란이 직접적 동기가 되어 일어났다. 정부는 회유책으로써 우선 선무사, 안핵사를 파견하여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고, 말썽이 된 수령과 향리를 처벌한 후 이어 농민 항쟁의 주모자를 처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삼정의 개선을 위하여 진주 민란 이후 삼정이정청을 두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② 동학 농민 운동(1894)의 폐정개혁안 12조의 내용이다.

알아두기

*2014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전근대사-사회사 29> “홍경래의 격문”

평서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와 자제와 공사천민들은 모두 이 격문을 들어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옛터요 단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 의관(衣冠 : 유교 문화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급제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곳이다. 그러나 조정에 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문의 노비들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높이라 한다. 서토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열부군후에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만약 어리석게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철기 5,000으로 남김없이 밟아 무찌르리니, 마땅히 속히 명을 받들어 거행함이 가하리라. 대원수. <순조실록>

적중 문제 ⇨ 주제·사료·선다 적중

[600제 301번] 다음 사료와 관련된 농민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토(西土)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 자 있겠는가. 막상 급한 일을 당해서는 …… 과거에는 반드시 서로(西路)의 힘에 의지하고 서토의 문을 빌었으니 400년 동안 서로의 사람이 조정을 버린 일이 있는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치성하니 …… 흉년에 굶어 부황 뜬 우리가 길에 널려 늙은이와 어린이가 구렁에 빠져 산 사람이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대원수>

- ① 삼정 문란이 가속화되자 일어난 민란으로 토지 재분배를 주장하였다.
 ② 주기론의 입장에서 후천개벽 사상이 주장되었으며, 포접제의 조직이 등장하였다.
 ③ 이 민란 이후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어 수취체제의 개선이 모색되었다.
 ④ 정부의 잡상(潛商) 금지와 광산개설 금지조치는 이 지역의 신흥 상공업세력과 몰락양반이 결집하여 봉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 ④

문 7. 다음 상소문을 올린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 (중략)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나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

- ① 의병 운동을 주도했으며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 ② 왕궁, 일본 공사관, 민씨 일족을 습격하고 대원군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 ③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난하고 이것을 가져온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 ④ 『화서아언』에서 프랑스와의 통상을 반대하고 서양세력과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015~1017쪽 참고)

☞ 제시문은 최익현의 개항반대 상소문의 일부이다. 1870년대의 위정척사 사상을 대표하는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인해 일본과의 수교가 재개되자, 왜양일체론을 담은 ‘오불가척화외소(五不可斥和議蔬)’를 올렸다. 이후 최익현은 1895년의 을미개혁 당시에는 단발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와 재소를 올려서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망국조약에 참여한 박제순 등 오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6년에는 전라도 태인에서 임병찬과 함께 의병 활동을 하다 붙잡혀 대마도로 유배되었는데, 유배 이후 “왜놈의 음식은 먹을 수 없다.”며 식음을 거부하다가 순국하였다.

- ② 임오군란(1882)에 대한 설명이다.
- ③ 1880년대에 이만손 등이 전개한 개화 반대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 ④ 1860년대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한 이항로에 대한 설명이다.

알아두기

*2014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근현대사 1-25> “1870년대의 위정척사 사상-최익현의 개항 반대 상소”

지금 왜적과 강화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폐단이 있습니다.

첫째, 강화가 그들의 애결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족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강화를 서두르는 것이라면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제어할 것이니, 그런 강화는 믿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물건은 한정이 있는데 저들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

셋째,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교역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면암집>, 최익현

적중 문제 ⇨ 주제·사료 적중

[600제 414번] 다음은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어떤 운동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가)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욕심을 낼 것입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중략)-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敵)입니다.
- (나) 서양 오랑캐의 화(禍)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홍수나 맹수의 해(害)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邪學)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 (다) 러시아·미국·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중략)- 더욱이 세계에는 미국·일본 같은 나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라) 이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 공경(公卿)에서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한 뜻이 없을 것인가.

-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가)-(다)-(라) ④ (나)-(가)-(라)-(다)

정답 ③

문 8. 조선총독부의 ‘문화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인의 협력을 부르짖는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민족운동을 탄압하고자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적용하였다.
- ③ 조선인 계통의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 ④ 친일파 양성을 겨냥하여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를 만들었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166쪽 참고)

☞ 조선총독부는 3·1 운동으로 거족적이고 단결된 저항이 일어나자 무단 통치의 한계를 절감하고, 1920년대에 문화 통치로 선화하였다. 명칭만으로는 탄압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족 기만 전술로써 문화 통치기로 오면서 경찰 인원이 증가하였고, 치안유지법 제정(1925)을 통해 탄압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또한 동아·조선일보 간행이 허용되었지만, 지나친 검열과 정간 등의 방법을 통해 탄압을 가하였고, 지방 행정의 자문 기관으로 도 평의회·면 협의회·학교 평의회를 설치하여 친일파 양성책 내지 민족 분열 정책을 전개하였다.

- ① 민족 말살 통치기(1930~1945)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일제는 중·일 전쟁(1937)이 확대되자,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후속으로 1940년부터 국민 총력 운동을 전개하였다.

적중 문제⇒ 주제·선다 적중

[200제 4회 12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 아닌 것은?

나는 일시 동인(一視同仁)의 정신을 존중하고 동양 평화의 확보와 민중의 복리 증진을 조선 통치의 대원칙으로 삼는다...(중략)...이에 총독부 관제를 개혁하여 관리 임용을 확대하고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무관 복제를 폐지한다.

- ① 치안유지법 제정
- ② 산미증식계획 추진
- ③ 중추원 설치
- ④ 신은행령 제정

정답 ③

문 9. 다음 격문을 발표한 인물들이 추진했던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비록 초야에 묻힌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어찌 국가의 위망을 앉아서 보겠는가. 팔로(八路)가 마음을 합하고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 호남창의문 -

- ① 사창제 실시와 양전 사업을 주장하였다.
- ② 봉기군을 이끌고 황토현에서 관군과 교전하였다.
- ③ 고부읍을 점령하고 백산에서 농민군을 정비하였다.
- ④ 삼정의 문란을 비판하고 전문사를 혁파하려 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030쪽 참고)

☞ 제시문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군 제1차 봉기 격문(호남창의문)이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봉기를 일으킨 농민군은 사발통문을 돌리고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정부가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이용태가 사후 처리를 빌미로 농민들을 탄압하자, 동학 농민군 제1차 봉기가 일어났다. 농민군이 황토현·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북상하여 전주성까지 점령하자, 위기를 느낀 정부는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텐진 조약을 구실로 하여 일본군까지 출병하였고, 농민군은 외국군 철수와 폐정 개혁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농민군은 폐정개혁안을 집행하기 위해 농민의 자치 조직으로 집강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 ①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이다.

문 10. 밑줄 친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보 기 >

- ㄱ.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약속한 것이다.
- ㄴ.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 ㄷ.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를 가설하기로 하였다.
- ㄹ. 남북 불가침을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명시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377쪽 참고)

☞ 제시문은 1991년 12월에 채택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다. 남북한의 기본 관계에 관해 정부 간 공식 합의한 것으로, 제5차 고위급 회담(1991. 12, 서울)에서 채택, 서명되었고,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1992. 2, 평양)에서 확인, 발효되었다. 이 합의서에서 남한과 북한 정부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이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 중에 있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1992년 3월 18일 이전에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각기 구성하였으며, 판문점에는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및 경제 교류·협력 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ㄱ. 남북 정상이 만나 체결한 것은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과 2007년 10·4 남북 공동 선언(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 ㄴ.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 남북한은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별개의 의석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는 1991년 9월의 일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이전의 일이다.

알아두기

*2014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근현대사 2-35> “남북 기본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1972년에 채택된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

적중 문제 ⇨ 주제·유형·사료·선다 적중

[2014년 7급 국가직·서울시 대비 문풀 9회 14번] 다음 자료에 제시된 통일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①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
- ②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③ 이 이후 UN 동시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였다.
- ④ 닉슨 독트린 발표로 평화 공존 분위기가 조성된 국제 정세 속에서 등장하였다.

정답 ③

문 11. 밑줄 친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의 명령을 받아 편찬한 기전체 사서로 편찬 동기를 “학사대부(學士大夫)가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니 유감이다. 중국 사서는 우리나라 사실을 간략히 적었고 고기(古記)는 내용이 졸렬하므로 왕, 신하, 백성의 잘잘못을 가려 규범을 후세에 남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연표 3권, 본기 28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었다.

- ① 민간 설화와 신라의 향가 11수를 수록하였다.
- ② 열전에는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인이 편중되었다.
- ③ 동명왕의 건국 설화를 5언시체로 재구성하여 서술하였다.
- ④ 민족 시조인 단군을 강조하고 발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867쪽 참고)

☞ 제시문은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이다.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펴낸 역사서로, 신화적 세계관을 배척하였으며,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신라·고구려·백제 세 나라의 역사를 기전체로 적었다. 삼국사기 열전은 10권 중에서 김유신 개인의 열전이 3권을 차지하며, 나머지 68인의 열전을 7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 ① 민간 설화와 신라의 향가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일연의 『삼국유사(1281)』이지만, 삼국유사에는 14수의 향가가 수록되어 있다.
- ③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제3권에 수록되어 있는 「동명왕편(1192)」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이승휴의 『제왕운기(1287)』에 대한 설명이다.

적중 문제 ⇨ 선다 적중

[600제 346번] 다음 글의 비판을 받은 인물이 편찬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역사에 대한 식견이나 재주가 전혀 없어 지리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며 역사의 관례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며, 자기 나라의 높일 만한 것도 알지 못하며, 영웅이 귀중함도 알지 못하고 단지 허무맹랑하고 비열하며 전혀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얘기를 끌어 모아 몇 권을 만들고 이것을 역사라 하고 또한 삼국사라 한 사람이니, 역사여, 역사여, 이러한 역사도 역사인가. <독사신문>

- ① 삼국의 왕들을 본기로 편찬하였으며 세가가 없다.
- ② 백제의 요서 경략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삼국사기의 열전에서 가장 자세히 언급된 인물은 김유신이다.
- ④ 삼국사기는 신라왕들의 명칭을 고유 호칭 대신 모두 왕으로 표기하였다.

정답 ④

문 12.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①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 ② ㉡-사사오입 개헌으로 시작되었다.
- ③ ㉠-4.13 호헌 조치로 효력을 유지하였다.
- ④ ㉡-6.10 민주 항쟁의 결실이었다.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352쪽 참고)

☞ 제시문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발표된 6·29 선언의 내용이다.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두환 정권은 민주정의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를 전면에 내세워 6월 29일, 직선제 개헌안에 의한 대통령 선거와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및 시국 관련 사범의 석방,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자유와 창달, 지방 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시국 수습 방안 8개항을 6월 29일에 발표하였다

- 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10월에 공포되었다.
- ②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루어진 2차 개헌(1954. 11)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것이었다.
- ③ 4·13 호헌 조치는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것으로, 6월 민주 항쟁의 발단이 된 사건이다.

알아두기

***2014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근현대사 2-30> “6·29 선언”**

-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둘째,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셋째,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 사범이나 살상·방화·파괴 등으로 국가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 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문 13. (가), (나) 시대의 사회상과 유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뿔 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나) 고인돌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형성되는 한편 군장국가가 등장하였다.

< 보 기 >

- ㄱ. (가)-동굴 유적지로 덕천 승리산, 제천 점말, 청원 두루봉이 있다.
 ㄴ. (나)-금속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나타나고 사유 재산 제도가 발달하였다.
 ㄷ. (가)-반달 돌칼과 구멍 뚫린 돌자귀를 만들어 농경에 활용하였다.
 ㄹ. (나)-서울 암사동과 황해도 봉산 지탑리가 주요 유적지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56쪽, 79쪽 참고)

☞ 제시문의 (가)는 구석기, (나)는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다.

- ㄷ. 반달 돌칼과 돌자귀 등은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유물이다. 신석기 시대 이후에 농경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이 유물들은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나타나 청동기 시대에 흔히 쓰였다.
 ㄹ. 서울 암사동과 봉산 지탑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이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기원전 3000~4000년경의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터가 남아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신석기 시대 최대의 집단 취락지이다. 봉산 지탑리 유적에서는 피, 조로 보이는 탄화된 곡식과 돌보습, 돌낫 등의 신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적중 문제 ⇨ 주제.선다 적중

[600제 18번] 다음 유물과 유적이 만들어진 시대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국과 같은 계통의 문화가 성행하였다.
 ㄴ. 잉여 생산물로 인해 집단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계급이 분화하였다.
 ㄷ. 많은 취락들이 구릉에 위치하고,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이 만들어졌다.
 ㄹ. 청동기로 농기구 등 다양한 도구가 제작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③

문 1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역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니 이제 군포를 영구히 1필로 감한다. 부족해진 재정은 어장과 선박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서 거두고, 선무군관에게서 1필씩 거두어 보충하도록 한다.

- ①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 ② 호포제가 실시되었지만 백성의 부담은 여전하였다.
- ③ 신해통공으로 상업 활동이 늘면서 군포 부과 대상이 줄었다.
- ④ 감영과 병영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면서 군포 부담이 증가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④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560쪽 참고)

☞ 제시문은 영조 26년(1750)에 실시한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군포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유망하는 농민이 증가하자, 양인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감포론을 기반으로 한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 ① 균역법 실시의 결과에 해당한다. 결작세는 균역법의 실시로 인해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전결에 1결당 쌀 2두(또는 돈 5전)를 부과 징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점차 지주가 농민에게 결작 부담을 강요하여 군적 문란이 심해지자 농민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 ② 호포제는 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 ③ 신해통공은 정조가 1791년에 좌의정 채제공의 주장에 의해 실시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유형 적중

[2014년 7급 국가직, 서울시 대비 5회 3번] 다음 자료에서 언급한 수취체제의 개편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백성은 날로 곤란해지고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니, 혹 한 집안에 부·자·조·손 이 군적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거나 서너 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군포를 납부해야 하며,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황구는 젓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백골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한 사람이 도망하면 열 집이 보존되지 못하니, 비록 좋은 재상과 현명한 수령이라도 어찌할지를 모른다.

『영조실록』

- ① 어염세와 선박세 징수
- ② 백지징세와 도결 강화
- ③ 결작과 은여결세 징수
- ④ 선무군관포 징수

정답 ③

문 15.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가 글을 올리기를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했습니다. … (중략) … 원컨대 폐하께서는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서 이를 행하여 빛나게 중흥하소서. 이에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뢰입니다.”

< 보 기 >

- ㄱ. 재조 대장경의 조판을 주도하였다.
- ㄴ. 순천의 수선사 결사 운동을 지원하였다.
- ㄷ. 금속 활자본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발문을 지었다.
- ㄹ. 문인 이규보를 발탁하여 그의 행정 능력을 활용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334쪽 참고)

☞ '그'는 최충헌이고, 제시문은 그가 올린 '봉사 10조'에 대한 기록이다.

- ㄴ. 최충헌은 수선사 결사 운동을 지원하였고, 이후 수선사 결사 운동은 무신정권의 직접적 지원을 받으면서 중앙 정치세력과 연결되고 교단이 확장 발전함에 따라 보다 보수화 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 ㄹ. 무신정권 이후 많은 문인들이 수난을 당하였으나, 최충헌 집권 이후에는 학문이 다시 진흥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충헌은 이규보를 발탁하여 그의 행정 능력을 활용하였다.
- ㄱ, ㄷ. 최충헌의 뒤를 이어 교정별감이 된 최우에 대한 설명이다.

적중 문제 ⇨ 주제·선다 적중

[600제 104번] 다음 글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왕은 구기지설(拘忌之說)을 믿고 새로된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일을 택하여 들어갈 것
2. 근래 관제에 어긋나게 많은 관직을 제수하여 녹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원 제도에 따라 관리 수를 줄일 것
3. 근래 벼슬아치들이 공사전(公私田)을 빼앗아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토지 대장에 따라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
4. 공사조부(公私租賦)를 거두는데 향리의 횡포와 권세가의 거둬되는 징수로 백성의 생활이 곤란하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하여 금지케 할 것

- ① 회종을 폐하고 강종을 옹립하였다.
- ② 중방을 무력화시키고 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정권 유지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 ③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며, 대장경을 제작하게 하였다.
- ④ 원종의 귀국 후 몽골 사신을 죽이고 원종을 폐위하려다가 피살되었다.

정답 ①

문 16. 다음 강령을 채택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는 조선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도모한다.
- 우리는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 기관이 되기를 기한다.
- 우리는 일체의 개량주의 운동을 배척하여 전 민족의 현실적인 공동 이익을 위하여 투쟁한다.

- 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폐지하자고 하였다.
- ② 의무 교육제와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주장하였다.
- ③ 노동운동과 연계하여 최저 임금제를 요구하였다.
- ④ 여성의 법률상 및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고 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218쪽 참고)

제시문은 신간회(1927)의 강령이다.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하여 창립한 신간회는 노동쟁의, 소작 쟁의, 동맹 휴학 등의 대중 운동을 지도하였고,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청년·여성·형평 운동과도 조직적으로 연계하였고, 자매 단체로 근우회가 조직되었는데 여성의 단결, 남녀평등, 여성 교육 확대, 여성노동자 권익 옹호, 새생활 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 대회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 ② 1920년대에 조선교육회(조선교육협회)는 민족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유형·사료 적중

[600제 104번] 다음과 같은 강령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는 정치적 ·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 ① 비합법 단체로서 노동쟁의, 동맹휴학 등과 같은 운동을 지도하였다.
- ② 내부 대립과 일제의 탄압,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등으로 해체되었다.
- ③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④ 반자치 운동의 입장에서 세력을 통일하여 결성한 민족 협동 전선체였다.

정답 ①

문 17.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나라 소종 황제가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이라는 두 가지 재앙이 서쪽에서 그치고 동쪽으로 오니 굶어서 죽고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늘어 있었다.
-해인사 묘길상탑기-

- ① 당나라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 ② 왕실이 차지하는 농장은 장·처라 불리었는데 그 수는 360개나 되었다.
- ③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한 이들이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조세를 징수하였다.
- ④ 관료에게 관료전을 주고 녹읍을 폐지하는 대신 세조(歲租)를 차등 지급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241쪽 참고)

☞ 「해인사 묘길상탑기」는 최치원이 글을 지었으며, 진성여왕 9년(895) 7월에 전란에서 사망한 원혼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삼층석탑을 세운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신라 하대에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여 행정·군사권을 장악하였으며, 각 지역의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군 단위의 지방을 지배하였다

- ① 신라 하대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신라 하대의 혼란은 당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신라 사회 내부의 모순이 주요 원인이다.
- ②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장·처는 경기·충청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며, 각 궁원, 내장택, 사원 등 왕실 재정과 사원 재정을 담당하였다.
- ④ 신라 중대에 대한 설명이다. 왕권의 전제화로 신문왕 7년(687)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고, 신문왕 9년(689)에 녹읍제를 폐지하여, 연봉 성격의 축년사조(逐年賜租)로 세조(歲租) 지급을 확립하였다.

적중 문제 ⇨ 주제 유형 선다 적중

[600제 82번] 사료와 동시대인 신라 하대에 등장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3월에 웅진주도독 김헌창은 아버지 주원이 앞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배반하여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이라 하며 원년을 칭하였다. 그리하여 무진주·완산주·청주·사벌주의 4주 도독과 국원경·서원경·금관경의 사신과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하여 자기 소속으로 삼으니, 청주도독 향영은 몸을 빼어 추화군으로 달아나고, 한산주·우수주·삼랑주·폐강진·북원경 등의 여러 성은 먼저 헌창의 역모를 알고 병사를 들어 스스로 지켰다.

- ① 같은 시기 김흠돌의 난이 일어나 김헌창과 연대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② 신문왕 시기 사치금지령이 발효되어 사회기풍을 정비하였다.
- ③ 호족들이 할거하였으며, 6두품 세력들 중 다수가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 ④ 발해의 무왕이 당을 공격하자 제2차 나당동맹이 결성되었다.

정답 ③

문 18. 다음 법령을 만든 개화파 내각의 개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1조 소학교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맞추어 인민 교육의 기초와 생활상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학교는 관립 소학교·공립 소학교·사립 소학교 등의 3종이며, 관립 소학교는 정부 설립, 공립 소학교는 부(府) 혹은 군(郡) 설립, 사립 소학교는 사립 학교 설립과 관계된 것을 말한다.

-소학교령-

< 보 기 >

- ㄱ.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 ㄴ.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하였다.
- ㄷ. 서울에 친위대를, 지방에 진위대를 두었다.
- ㄹ. 단발령을 폐지하고 의정부로 다시 설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풀이

정답 ②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040쪽 참고)

☞ 제시문은 을미개혁(1895) 당시 제정·공포한 '소학교령'의 내용이다.

- ㄴ. 1876년 6월에 체결된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은 1883년 7월에 개정되었다.
- ㄹ.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공포하여 상투를 자르게 하고 망건의 착용을 금지하였다. 아관파천(1896) 이후에 을미개혁에서 단행된 단발령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 대부분이 중지되었다.

알아두기

*2014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근현대사 1-58> “소학교령”

- 제1조 소학교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비추어 국민 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침을 본지로 함.
- 제2조 소학교를 나누어 관립소학교·공립소학교·사립소학교의 3종으로 함. 관립소학교는 정부 설립이요, 공립소학교는 부 또는 군 설립이요, 사립소학교는 사립 설립에 관계한 자를 말함.
- 제3조 관립소학교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면하고, 공립소학교에 필요한 경비는 부 또는 군에서 부담함.
- 제4조 사립소학교는 각 해당 관찰사의 인가를 거쳐 설치함. 사립소학교 인가에 관한 규정은 학부대신이 정함.
- 제5조 사립소학교 경비는 지방 이재 또는 국고에서 얼마를 보조할 수 있음.

‘관보’, 1895년 7월 22일

적중 문제 ⇨ 주제 유형 선다 적중

[600제 442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법령들’에 의해 이루어진 개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새로 발표된 법령들에는 배타적인 과거의 낡은 관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성문을 닫고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종각의 타종을 없애버리고, 우체사를 설치하여 편지 왕래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태양력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령들에 일본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 감정은 매우 격양되었다.

- 해밀턴, 『개화기의 한·미 관계』 -

< 보 기 >

- ㄱ. 지방행정조직의 13도 개편
- ㄴ. 건양 연호 사용
- ㄷ. 훈련대 폐지
- ㄹ. 재정의 일원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③

문 19.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나라 빚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에 관계한다.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대세이다.

— 취지문 —

- 모집금 내역

도명	5월까지 모집금	6월 중 모집금	계
경성	62,735.080	109.200	62,844.280
경기도	13,916.087	4,412.312	18,328.399
충청북도	3,778.625	227.530	4,006.155
.....			
함경북도	977.400	207.000	1,184.400
합계	241,098.913	31,590.606	272,689.519

— 경무고문 보고 —

- ① 한일 신탁약에 따라 중지되었다.
- ② 서울에서는 국채보상기성회가 발족되었다.
- ③ 2,000만 조선인의 금연 및 금주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언론 기관인 대한매일신보사와 황성신문사가 지원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①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1087쪽 참고)

제시된 자료는 국채 보상 운동(1907)에 대한 내용이다. 1907년 대구 광문사(廣文社)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서울에서 국채 보상 기성회가 설립되는 등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전국적으로 금연 운동이 전개되었고, 부인 단체와 여학생들도 의연금 모집에 적극 나섰다. 특히,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심지어 일본 유학생들도 담뱃값을 절약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600여만 원을 모금하였다.

- ① 국채 보상 운동은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국채 보상 운동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1908년에 중단되었다.

알아두기

*2014 대한국사 사료집 <사료로 보는 근현대사 1-114> “국채 보상 운동 관련 사료”

·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천 3백만 원은 우리 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못 갚는다면 그 때는 이미 3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국토가 한 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인민들은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재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천 3백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응당 자원해서 일원·십 원·백 원·천 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1일

문 20. 조선시대 관계(官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의 품계는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하였다.
- ② 행수 제도를 마련하여 가능한 관직과 관계가 일치되도록 하였다.
- ③ 정 7품 이하는 참하관이라 하며, 목민관인 수령에 임용하였다.
- ④ 정 3품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이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정답 풀이

정답 ③ (☞ 2014 대한국사 기본서 390쪽 참고)

- ① 조선 관료의 등급은 크게 1품에서 9품까지이며 각 품에는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있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되어 있었다.
- ② 행수 제도는 순자법 실시로 관직과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이는 능력에 따라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려는 보완책이었다. 관계는 높는데 관직이 낮은 경우[계고직비(階高職卑)]는 행(行)을, 관계가 낮는데 관직이 높은 경우[계비직고(階卑職高)]는 수(守)를 명기하여 관계와 관직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행수제도에서의 관계 불일치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자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성종 이후에는 관직과 품계의 일치를 꾀하려는 제한규정으로 정비되었다.
- ④ 당상관은 문관 중 정3품 상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 중 정3품 상의 지위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급 관료를 일컬었다. 당상관은 고급 관료로서 인사권·포폄권(褒貶權)·군사권 등 여러 특권을 가지고 중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였다.
- ③ 조선 시대에는 참상관(종6품 이상) 이상만이 지방 수령에 임용될 수 있었다.

적중 문제 ⇨ 주제 유형 선다 적중

[600제 199번] 조선시대의 관계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참상관 이상은 목민관에 임용될 수 있었다.
- ② 산직은 검교직, 동정직에 해당했으며 명예직으로 첨설직도 부여되었다.
- ③ 행수제의 실시로 관직보다 품계가 높으면 관직 앞에 '수(守)'자를 붙였다.
- ④ 이조전랑은 당상관 이상의 추천권을 행사했으며, 3공에 견줄만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정답 ①